

# 승리제단은 인류의 시원과 미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신(神)인 마귀가 점령하고 있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원자 하나하나가 모여서 물질을 형성하고 있고 각각의 원자 속에는 핵이 있고 핵 속에는 양성자가 있습니다. 그 양성자의 빛은 태양 빛보다도 몇 억 배 빠른 빛이요, 투과력 또한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의 물질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 또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 이원용 박사가 서울대학교에 와서 양성자의 빛에 관해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양성자의 빛은 백억 광년의 밖의 두께를 투과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의 말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양성자의 빛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무한대의 영이요, 영원한 영이어서 저항력을 전혀 받지 않는 빛입니다. 남의 두께가 백억 광년의 빛보다도 다 투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육천 년 전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철단과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생의 속성이 있는 영이므로 영원무궁토록 저항력을 받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지금부터 육천 년 전에 마귀에게 패했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패했다는 것이 성경에 자세히 안 써 있지만 성경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정에 통달하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격암유록에는 하나님의 사정이 비교적 자세히 써어 있는데 이는 격암유록이 천손민족인 우리의 조상님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헤와가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덴동산은 바로 하늘나라인 바 그 에덴동산에는 영생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영만 살 수 있지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 볼 때 최초의 아담과 헤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됩니다.

천국의 구비조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야 천국이니 바로 천국은 하나님이나 사는 곳이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3:5)'고 했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라'라는 말에는 인간이 본시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옛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녕 태초의 아담과 헤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태초에는 아담과 헤와의 주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있었으나 선악과가 되는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마귀 속에다 가둬 놓고 마귀가 주체 영이 되는 순간 바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은 무식한 세상에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없다는 말이 나오



구세주 호희성님

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신이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성경에는 구구절절이 써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니라(신 14:1)'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라(요 1:12)' 이때 '너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자녀인데 여호와가 곧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께 얹다 고 하여 '예수는 독생자' 운운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약 1:15)'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죄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인데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뿌리가 '나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가 됩니다. 원죄에서 출기의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죄는 곧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를 어떤 이는 사과다 복숭아다 하고 다루고 있지만 성경말은 영적(靈的)말이므로 영적 과일이며, 영적 과일이니 곧 영입니다. 영은 영인데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니가 죽이는 영, 사망의 속성이 있는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죄는 마귀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가 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종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더러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주체 영이 마귀니까 사람으로 전락한 것인 바 주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면 사람은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신 것이 성경에 써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야 에덴동산을 다시 세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옛세 동안 일을 하시고 이제 되는 날 쉬셨습니다. 이 구절을 두고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하고 다루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안식일에 참여할 자가 있고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이 안식일이라면 안식일에 참여 못 할 자가 이 지구 땅 위에 있었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일

하시고 이제째 되는 날 쉬신 것은 '하나님의 하루는 천 년'이므로 옛세 즉 육천 년간 일하시고 이제 즉 칠천 년대에 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드레 날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에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천 년간 고단하게 하신 일은 이긴자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겨서 구세주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긴 세월을 고단하게 이긴자를 키우신 것입니다.

그러한 영의 사정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하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모신(이긴자)가 승리제단을 이고십니다

이러한 깊은 사정을 이 사람이 논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로 이 사람에게서는 이슬성신이 내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구세주였습니다.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행3:22~23)'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구세주로서 모세와 같이 이슬 만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구원이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슬성신에 대하여는 호세아서 14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긴자>입니다. '이긴자에게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 내린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 이긴자에게 내리는데 이슬이 되어 내리는 저 이긴자가 백합화같이 핀다고 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구주는 산곡의 백합 명량한 새벽 별, 만민 위에 뛰어나시는 줄세'라고 했듯이 백합화는 구세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명량한 새벽별>이라고도 했습니다. 명량하다는 것은 밝다는 뜻이며 빛나는 뜻으로 빛날 희(熙)에 별 성(星)을 가진 자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이처럼 요한계시록 2장 28절로부터 28절에도 새벽별 즉 밝고 빛나는 별의 이름을 구세주가 가지고 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불경 미륵진경에도 그렇게 써어 있는데 미륵진경에는 이 사람의 생가지 써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죄천조 구중생(救罪天曹 求眾生)>이라는 대목입니다. 바로 '하늘의 조(曹)씨가 중생들의 죄를 사해 주고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미륵불의 이름은 명성(明星)이라고도 써어 있습니다. '밝을 명'에 '별 성(星)으로 밝은 별, 즉 새벽 별입니다. 이렇게 경전은 정확하게 구세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지하여 종교가 아닌 것을 종교로 잘못 믿고 있으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신 마귀가 죽고 있는 세상인 고로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1년 7월 13일 말씀 중에서

## 호희성님의 간증담

# 생포한 인민군 포로들의 총살을 막다

## 빨갱이로 몰려 다시 포로수용소에 수용되다

포로 중에는 장성급도 몇 명 있고 중국 팔로군 출신도 있었다. 대부분 전투 경력이 많은 베테랑들이었다. 그 중 최고 높은 별 두 개짜리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제지할 틈도 없이 빨갱이들에게 가족이 몰살당한 치안대원에게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후고 다음은 별 하나짜리가 당할 차례였다. 이 사람은 황금히 총을 든 치안대원 앞을 가로막으며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나머지 포로들은 더 이상 즉결 처형을 당하지 않았다. 포로들을 전부 이동시켜 화교 교실이다 집결시켜 놓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나는 서울에서 대학생으로 군 생활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지역 치안책임자다. 그리고 우리 여섯 명이 너희들 200명을 다 잡았다. 전투 경험도 없는 우리들에게 몽땅 잡혔으니 이제 가지고 너희들이 뭘 하겠느냐."고 냉소하였다. 저들도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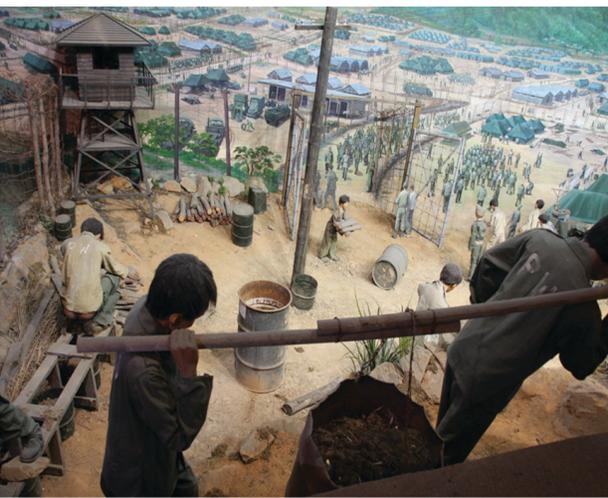
뿔여 앉아 있는 포로들 앞에서 호소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핏줄을 이어 받은 단군 할아버지 자손으로서,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우리 민족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몇몇 위정자들이 시킨다고 하여 같은 동족을 살상한다는 것은 사람

의 할 노릇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놈 밑에서 식민 생활을 하여 36년간이란 기나긴 세월을 언어도 뺏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유린당해 왔는데 무엇이 모자라서 해방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동족끼리 피를 흘려야 하느냐! 이는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어리석은 인생의 발상인 것이다. 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수많은 동족이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 그런 폭정자에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만이라도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죽인 다수가 바라고 원하는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자."고 즉석연설을 하였다.

이에 인민군들 중 나이가 지긋한 몇몇 사람들도 긍정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그때 이 사람은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공산주의에 몰든 자라도 양심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 포로 아닌 포로가 다시 되다

이 사람이 이끄는 치안대는 미처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들을 잡아 계속 형무소로 보내고 군내 구석구석을 뒤지며 멸공 작업을 하는 고로,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서로 간의 긴밀한



포로수용소의 모습(거제도 포로수용소 기념관)

협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200명 군관 단 특공대가 들었던 집에서도 그 집주인 아들이 뒷담을 넘어 재빨리 신고를 해 주어 큰 전공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대동군 일대에 숨어 있는 공산군을 포로로 잡아 넘기는 일을 하다 보니 공산군에게 가족이 몰살당한 동지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의 복수심 때문에 여지없이 인민군 포로들을 총을 쏘서 죽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때마다 이 사람은 그들을 저지하며 사람 죽이는 것을 강력하게 만류하곤 하였던 것이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자주 발생하다 보니, 그들은 이 사람에 대해 분노와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군 헌병이 난데없이 지프차를 타고 와서 이 사람 사무실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권총을 들이대며 이 사람을 가리키며 영어로 말하기를 빨갱이라고 하며 죽이려 하는 것이었다.

당시 이 사람도 치안대장이라 소제(蘇制) 권총 두 정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어 재빨리 그들을 향해 사격자세를 취하였다. 미 헌병들은 대동군 치안대장이 빨갱이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잡으러 왔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쪽 손으로 팔의 "폴리스 치프(POLICE CHIEF)"라고 쓴 완장을 가리키며 빨갱이가 아니고 빨갱이를 잡아서 없애는 자라고 말하였다. - 당시 이 사람은 영어 회화를 할 수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쏘서 죽일 것처럼 위협을 계속하였다. 아무리 내가 빨갱이가 아니고 빨갱이를 잡는 치안대장이라고 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정 그렇다면 너희들이 총을 쏘서 죽인다면 나도 죽일 것이라고 응수했다. 아무리 총을 맞아도 곧바로 죽지 않으니 너희들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로써 위협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너희 대장에게로 직접 가서 답판을 짓자고 제의했다. 그러자고 하여 함께 지프차에 타고 미 헌병대 본부로 타고 떠났다.

헌병대 건물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자 동행했던 헌병들이 자초지종을 얘기했지만 미 헌병대장은 묻지도 않고 이 사람을 "똥키하우스 고우 어헤드"라며 무조건 형무소에 보내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들리는 말에 의하면 '치안대장이라는 자가 빨갱이를 잡아도 죽이지 못하게 한다.' 하여 치안대원 중에 불만을 가진 몇 명이 미(美) 헌병대에 이 사람이 빨갱이라고 믿고 그를 한 것이었다. 어떻게 항변해 볼 겨를도 없이 또 다시 평양 신양리형무소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빨갱이 잡는 치안대장이 하루아침에 인민군들이 득실거리는 포로수용소에 수감돼버린 것이다. 기막히게 억울한 이 사건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얼마 후, 중공군이 인해전술을 쓰면서 물밑듯이 밀고 내려오게 되었는데 당시 대동군 치안대원 30여 명은 전부 몰살당했다. 내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 양숙이란 처녀도 그때 죽음을 당하였다. 이 비통한 소식은 부산 가야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온 인민군들을 통하여 들었다. 동료들을 생각하니 비통한 심정 억누를 길이 없었다.\*